

## “10年앞을 보고 자기 개발을”

세계적 불황이 시작하던 1979년초에 나는 일터를 지금의 천호부화장으로 옮겨왔다. 내 스스로 기업을 일으켜 보고저 하던 꿈을 청산하고, 한사람의 직업인으로 기업사회에 공헌하고자 결심을 한 뒤의 일이다.

기업이란 누구나 하고저 한다고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지난 2년동안 지금의 직장에서 일하면서 철저히 깨달았다. 조그만 구멍가게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적어도 기업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규모의 회사를 이룩하여 경영한다는 것은 범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기업은 하나의 창조적 작품이다.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숭고한 이상과 회사 안팎의 모든 사람에 대한 참된 사랑과, 사물에 대한 깊은 지식과,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를 가진 선택된 사람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내가 모든 기업주를 우러러 보고 박수를 보내는데는 내나름대로의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기업인에 의해 발전하기 때문이다. 숭고한 이상과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창조적 기업주들이 부단히 미래에 대해 도전하는 가운데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도전에 성공하므로서 부(富)가 축적되고, 그 부(富)를 그 기업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모든 사람과 분배하고, 축적된 부(富)는 다시 새로운 부(富)를 창조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인류가 가난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의 능력과 지혜를 바쳐 내가 속해 있는 기업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이 내가 할일이며, 같은 시대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직업관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는 내가 속해있는 회사의 기업주가 종종 다음과 같은 말을 강조하시는 것을 들어왔다. “우리는 남보다 항상 조금 더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 아는 것을 남에게 팔아서 남보다 잘 살아야 한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여

기에 태어난 한국인들이 남달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선진국들보다 늦게 출발했다. 그렇기에 가진 것이—라고는 풍부한(?) 인력자원—여기서 나올 수 있는 두뇌밖에 없다.



## 김 정 응

(천호부회장 상무)

앞으로 다가올 10년 후를 생각해 본다.

국가경제 발전에 따라 국민소득은 증가할 것이고, 소득이 증가하면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동물성 단백질 식품의 수요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다. 국민 1인당 계란은 200 개 이상으로 지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고, 닭고기는 적어도 20kg (생체기준 10수) 까지 지금보다는 5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양계산업은 그 규모면에서 크게 발전할 것이다.

양계산업 구조면에서는, 양계장수는 오히려 줄고 양계장 단위 규모 즉 사육수수는 지금의 몇배로 증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생산원가 경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누가 보다 값싸게 좋은 제품을 생산하느냐 하는 것이 그 기업의 성장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선진국들 처럼 기업의 수직 통합 내지는 계열화가 불가피 해 질 것이다. 사육자는 생산에만 전력하고 계열주체 기업은 가공 판매 및 원료조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사육자의 생산관리 및 경영에 대해 적극 참여하며 원가절감을 위해 지도하고, 새로운 생산 시스템의 연구개발에 앞장설 것이다.

방대한 기업조직의 운영을 위해 컴퓨터가 필수적인 사무기기가 될 것이며, 모든 것이 “온-라인”에 의해 처리되고 집행될 것이다.

향후 10년 - 기업의 종사원과 기업주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 새로운 기술과 과학, 경영기법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남보다 조금 더 아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10년이 다가오고 있다.

나는 격변할 10년을 내다보면서, 내 스스로 얼마나 마음의 준비와 각오가 되어있는지를 반성해 본다. 내가 속해있는 사회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안되기 위해, 자기 개발에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는 마음의 채찍질을 자주하지만, 역시 평범한 사람인 나는 자기 충실에 부족하다.

이것은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닐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직업인은 자기를 위해 속해있는 사회를 위해, 그리고 크게는 먼 후손을 위해 자기개발에 충실해야겠다.

